

구라보의 방염 소재 - 계속 수요 개발하는 롱 셀러 상품

구라보는 방염(防炎) 소재 “브레바노(Brevano)”가 작업복이나 침장 등의 분야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판매를 시작한지 15년이 되는 롱 셀러 상품인데, 안전이나 안심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지면서, 수요가 확대되었다. 작업복에서는 소방용뿐 아니라 일반 기업용으로도 판매가 늘고 있는데, 침장에서는 병원용뿐만 아니라 호텔용 등의 판매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재(防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일반 소비자용으로 수요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 불길이 퍼지지 않고 자기 소화의 방염 기능성

“브레바노”는 난연성(難燃性)이 좋은 아크릴계 섬유 “프로텍스”와 면을 혼방한 소재로서 높은 방염 성능이 있으면서도 면이 갖고 있는 흡수성이나 쾌적한 착용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브레바노”는 불에 닿아도 불길이 퍼지지 않고 소재 자체가 스스로 소화(消火), 즉 불을 끄는 기능이 있다. 불이 “브레바노”에 붙은 경우에는 아크릴계 “프로텍스”가 타지 않고 탄화(炭火)하면서 동시에 불연성(不燃性) 물질이 생긴다. 이것이 면을 탄화하면서 연소 속도를 억누른다. 그리고 탄화한 “프로텍스”가 면의 표면을 덮어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스스로 소화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난연성을 나타내는 LOI(Limited Oxygen Index)가 29~32이며, 일반적인 기준치로 되어 있는 26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폴리에스터 등의 경우는 섬유가 열로 녹아버려, 피부에 묻으면 큰 화상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브레바노”는 바로 탄화하여 불이 퍼지지 않아, 열로 녹거나 오그라들지도 않아 그 점은 안심이 된다. 후가공이 아니고 소재 자체가 난연성이므로 세탁에 의한 기능 저하의 걱정도 없다. 항필링성이나 발열로 녹거나 오그라들지도 않아 그 점은 안심이 된다. 후가공이 아니고 소재 자체가 난연성이므로 세탁에 의한 기능 저하의 걱정도 없다. 항필링성이나 발색성 등에서도 우수하다.

유저(user)에게는 여러 가지 색이 모두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 된다. 숨 상태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한 색의 로트가 커지는데 “브레바노”는 후염이 가능하므로, 어떤 색과도 작은 양으로의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종래의 방염 소재는 기능성이 중요시 되면서, 착용감에 불만이 있던 유저도 많았었는데, 그 점도 개선되었다. “브레바노”는 면이 갖고 있는 흡습성의 크기나 촉감의 좋은 점을 살려 소프트하면서 쾌적한 착용감도 중요시 하고 있다.

◎ 5년만에 판매량을 두 배로

“브레바노”의 판매량은 최근 5년 동안에 2배로 늘었다. 작업복 분야에서는 특히 최근 4~5년에 문의가 많아졌으며, 2006년에도 2005년보다도 50% 많아지고 있다. 또한 침장 분야에서도 판매량은 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주력인 병원용뿐만 아니라, 호텔용 등의 새로운 용도에 제안함으로써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작업복 분야에서는 방염 기능과 제전 기능을 다 갖춘 “브레바노 플러스”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제전 기능도 갖추으로써 정전기에 의한 발화를 미리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들러붙지 않는 쾌적한 착용감을 만들어 내

고 있다. 주로 소방대원복 등으로 채용되고 있는데, 뛰어난 방염 성능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보다도 값이 적절하다는 느낌도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방재(防災)를 지나치게 염려한 불쾌한 유니폼을 직장에 적합한 쾌적한 유니폼으로”라는 콘셉트(concept)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자동차, 조선, 전력, 가스, 카 숍(car shop), 서비스 유니폼 등에서의 채용이 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각 기업에서 종업원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불을 사용하는 현장이나, 불을 피하여야 할 특수 작업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작업장에서도 “브레바노 플러스”를 채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

판매하고 있는 소재에는 ① 일년 내내 수요가 있는 소재 ② 여름용 팬츠 소재 ③ 여름용 셔츠 소재의 3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상재(商材)로서 미이용면(未利用綿)을 사용한 환경 배려형 소재 “브레바노 에코”를 추가하였다. ‘에코 마크’에 알맞은 난연 소재로서는 다른 제품이 없으며,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작업복으로 러시아로의 수출 실적이 있으며, 한국, 중근동 지역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 노인 홈용 니트 소재 등도 개척

침장·리빙에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쉬트, 커버를 중심으로 인기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담뱃불이 붙어도 불길이 넓어지지도 않으며, 이제까지의 방재 쉬트보다도 잠자리가 좋은 점에서 호텔용 등으로 채용되고 있다.

새로운 분야로서 노인 홈용으로도 제안하고 있다. 주택 화재로 고령자가

많이 사망하고 있는데, 불을 피하는 것이 늦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하여도 방염 소재를 시급히 제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분야를 위하여 옷이 구겨지지 않고 취급하기 쉬운 니트의 커버나 슈트를 2007년을 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호텔용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베드 메이킹이 쉬워져서 여러 장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직물로서도 평직뿐만 아니라 도비 등의 새 직물을 개발함으로써 소재 배리어이션을 넓힐 생각이다.

앞으로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것을 염두에 둔 용도 개척이나 소재 개발에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만 관한 제안도 늘어나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방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반 소비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난연 소재의 시장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